



용재오닐

양상블 디토, 익산에 오다

여섯남자의 색다른 협연



다니엘 정

익산예술의전당서 24일 무대

양상블 디토(DITTO)의 첫 익산 공연이 오는 24일 오후 5시 익산예술의전당 무대에 올려진다.

양상블 디토는 클래식 음악과 친숙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전통적이지 않은 아이디어들의 시도와 다양한 레퍼토리들로 미션을 실행해 나갔다.

디토는 밝은 클래식 음악을 뜻하는 디베르티멘토(Divertimento)의 약자이며 클래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2007년에 시작된 프로젝트 그룹이다.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비올리스트 리차드 용재오닐이 팀을 이끌고 다른 멤버들은 주제에 따라 조금씩 바뀐다.

데뷔 때부터 음악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시도로 많은 화제를 낳은 양상블 디토는 차별화된 프로덕션 제작과 공격적인 홍보를 통해 아티스트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청중의 관심을 끌고 더욱 열광하게 하고 있다.

또한 드라마 OST 연주, 흥대 앞 클래식 연주회, 게릴라 콘서트, 해외 화보 촬영, 다양한 뮤직 비디오와 캠페인 비디오 제작 등 클래식 연주 단체로서는 유례없는 파격적인 활동으로 더욱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10대, 20대는 물론 더 나아가 일반 대중을 클래식 공연장으로 모이게 하며 2008년, 2009년 예술의전당 유료관객 1위를 기록, 매년 10개 도시 순회공연을 모두 매진시키는 기염을 토한 양상블 디토는 2010년, 일본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2010년 6월 도쿄국제포럼과 오사카 심포니 홀 공연을 공식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펼쳤으며 일본 데뷔 첫해에 7,000석을 매진시키며 세계 2위 규모를 자랑하는 일본 클래식 시장에 당당히 진출, 한국 연주자와 한국 클래식 콘텐츠의 더 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익산 공연에는 용재오닐(비올라)과 다니엘 정(바이올린), 유치엔 첼(바이올린), 문태국(첼로), 김한(클라리넷), 스티븐 린(피아노)이 함께 한다.

익산에서 팬들과의 첫 만남이 될 이번 공연에서 잘생긴 외모와 세련된 옷차림은 덤이고 훌륭한 연주 실력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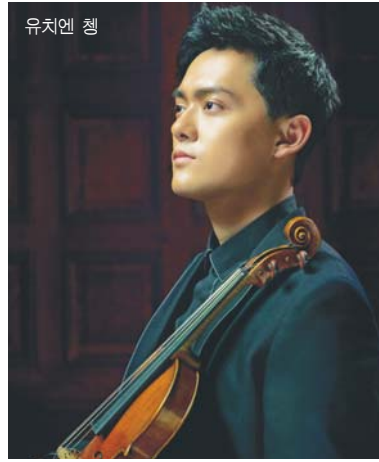
공연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익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arts.ilsa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익산예술의전당 ☎063-859-3254)으로 하면 된다. /익산=우병희 기자



스티븐 린



문태국



유치엔 첼



김한

전시체험놀이터 '소리판타지' 전주소리축제, 참여작가 모집

22일 오후 6시까지 신청접수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는 올해 축제 기간인 오는 10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전시체험놀이터 '소리판타지'를 함께 만들어 갈 미술작가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소리축제는 매년 어린이 관객을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더욱 참신하고 재미있는 기획으로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객을 찾아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직위는 놀이터를 컨셉트로 해당 구역을 공간·설치 미술로 꾸미거나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뤄진 '소리판타지'를 선보일 계획이다.

공모 주제는 소리판타지의 주제에 맞는 공상과 상상의 세계 또는 우리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소재로 한다.

미술과 여러 장르의 예술을 융합할 수 있으며, 구역별 공간 디스플레이 및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개인 또는 팀이면 지원할 수 있다.

모집 마감은 오는 6월 2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이메일(soriprogram3@soresfestival.com)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소리축제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올해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오는 10월 3일부터 7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 14개 시·군 일대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뉴시스

'2018 상하이아트페어' 참여 작가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은 '2018 상하이아트페어' 참가 작가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상하이아트페어는 전북 미술작가 발굴·육성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잠재력 있는 도내 미술 작가를 발굴해 해외미술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고, 전북 작가들의 역량 강화 및 경쟁력을 높여려는 사업이다.

재단은 오는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 동안 참여 작가에게 아트페어 참여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최근 3년간 주민등록상 도내에서 거주하고, 현재까지 활발한 작품 활동 실적이 있는 작가에게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와 문예진흥팀 전화(063-230-7433)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뉴시스

익산에서 출토된 국가귀속매장문화재, 이제 마한박물관으로

마한박물관, 전라문화유산연구원 보관 점토대토기 등 296점 인수

익산 마한박물관이 전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보관중인 점토대토기 등 국가귀속 매장문화재 296점을 인수했다.

이번에 인수한 유물은 2014년 전북과학교육원(익산 부송동 석치고개유적)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출토된 것으로 익산의 청동기시대와 마한 성립기 문화의 특징을 밝힐 수 있는 중요 자료로 평가된다.

특히 청동기시대의 석기제작 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유물과 익산이 마한 성립기(초기철기시대)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주는 점토대토기(덧띠토기) 등이 주목된다.

다. 점토대토기(덧띠토기)란 토기의 주둥이에 점토 띠를 두른 것으로 마한 성립기 무덤인 토광묘(움무덤)에서 확인되었으며 익산(금마)이 '고조선 준왕의 남래지'라고 기록한 고려 중기 이후 문헌 기록과 관련, 고도 익산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익산에서 출토된 국가귀속매장문화재는 국립박물관에서 보관·관리해 왔으나 2013년 이후 마한박물관이 익산에서 출토된 국가귀속매장문화재 4천여 점을



인수하면서 마한전문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익산 문화의 자긍심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마한박물관 관계자는 "익산에서 출토된 국가귀속매장문화재를 안전하게 보관·관

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면서 "이번에 인수한 유물은 제9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기간에 맞춰 특별전시해 익산문화를 전국에 알리고 전국체육대회가 문화대전 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국가귀속 : 허가를 받고 실시한 발굴조사에서 문화재가 출토된 경우 문화재보호법과 유실물법, 민법 등에 따라서 주인을 찾는 공고를 내고 만일 주인이 없으면 국가에 귀속하게 됨"

"유물인수 : 문화재청과 전라북도로부터 국가귀속매장문화재 재유기기관으로 지정된 유적전시관(마한박물관)이 발굴기관(임시보관기관)에서 마한박물관으로 유물을 이관하여 가져오는 작업"

한국전쟁 참전 미군 소장 태극기 박물관 품으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유물 기증식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지난 8일 한국 현대사 연구에 있어 큰 도움이 될 한국전쟁 유물을 기증해준 군산영광교회 임용섭 담임목사를 초청해 유물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전달하는 유물 기증식을 시청 면담실에서 가졌다.

이번에 기증받은 유물은 한국전쟁 참전 미군이 소장한 태극기와 블러드칩(Blood Chip)으로, 박물관은 약 한달 간 기증유물에 대해 본격적인 자료조사와 유물정비를 추진했으며 당시 사진자료와 임용섭 목사, 임 목사의 부인 박경이씨의 구술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진행했다.

태극기에는 1950년 7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한국전쟁에 파견된 미군들의 기록이 담겨있으며, 이들은 한국전쟁 발발 초기 부산에 파견된 미군 24사단으로 추정되며 총 35명(미군 32명, 한국군 3명)의 서명이 태극기에 온전히 기록되어 있다.

특히 평화의 지역(Peas Section), 승리(Victory) 등 전쟁이 끝나갈 바라는 소망이 담긴 문구도 함께 기록되어 있어 전쟁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국적으로 상관없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지난 8일 한국 현대사 연구에 있어 큰 도움이 될 한국전쟁 유물을 기증해준 군산영광교회 임용섭 담임목사를 초청해 유물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전달하는 유물 기증식을 시청 면담실에서 가졌다.

이 전우애로 뭉친 당시 군인들의 모습을 태극기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파견지역 및 이동경로가 기록되어 있는데 한국전쟁 최후의 보루였던 낙동강 방어선 전투는 물론 인천상륙작전 이후의 복진까지 참여했던 이들의 활동을 짐작할 수 있어 한국전쟁의 참상을 재조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용섭 담임목사는 "미국 시카고 유학 당시 한국전쟁 참전 미군으로부터 의미 있는 태극기를 소중히 간직해 달라고 부탁받았다"며 "수탈과 저항의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에서 가치 있게 전시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 기증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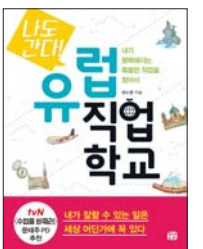
박물관 관계자는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들의 파견지역과 그들의 이름 등이 확인되어 한국 현대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기증된 유물의 고증과 복원작업을 진행해 다양한 전시유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자신이 좋아하는 길 찾아라"

▶ 신간도서 - 양소영 '나도 간다!'

행복해지는 직업 찾아 유럽의 직업학교로 떠나보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미래 직업과 진로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나도 간다! 유럽 직업학교'는 독일 자동차, 덴마크 가구, 스위스 시계, 오스트리아 관광 등 유럽 각국 주요 산업에 종사하는 인재를 키우는 학교들을 소개한다.



고려대학교와 성신여자대학교 글로벌 전형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한 저자는 독일,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직업학교들을 방문했다. 독일에서는 자동차 금속 기술 전기공학 호텔 미용, 덴마크에서는 농업 가구 요리 목외과 기술, 스위스에서는 시계 정보기술, 오스트리아에서는 내륙수호령해사 관광학교 등을 둘러 본 결론은 "내화 만이 길이 아니고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라"는 것이다.

학교 정경을 담은 사진, 상세한 위치가 표시된 지도, 홈페이지, 입학 조건 등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양소영 지음, 344쪽, 1만5800원, 꿈결 /뉴시스